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8.23)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관련

□ [주요 언론 동향]

- 주요 언론 매체는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항의했음을 인용 보도
- 제일재경망(第一财经网)은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신뢰 문제로 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했음을 보도¹⁾
 - *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경제연구부 刘向东 부부장은 한국이 역사 문제로 일본에 배상을 요구한 것이 분쟁의 직접적인 요인이며, 안보와 경제적인 문제에서 도전을 받은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
 - *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
- 환구시보(环球时报)는 한국 매체를 인용하여 이번 협정 종료가 한·일 양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광복절 축사를 통해 조성되었던 한·일의 대화 분위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도²⁾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므로 한국의 결정에 반대하며, 한·일 협력방식 등에 대해 미국과 적극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인용 보도³⁾

1) 「韩日军情共享将中断或早有征兆：日韩外长40分钟会晤双方自说自话，日不认为存在贸易冲突」, 『第一财经网』(2019. 8. 23)

2) 「韩国废“军情协定” 日本：以为韩不会做到这地步」, 『环球时报』(2019. 8. 23)

3) 「韩国终止《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 日美作何反应?」, 『中国新闻网』(2019. 8. 23)

- 인민망-환구시보(人民网-环球时报)는 한국 정부가 협정 종료에 대해 사전에 미국에 충분한 해명과 설명을 했고, 한미 동맹 관계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인용 보도⁴⁾)
- * 또한 이번 협정 종료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좌절시키는 것이므로, 향후 한·미 간 다른 협상이나 협정 추진 시 한국은 부득이하게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인용 보도
- 또한 미국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일 양국 간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인용 보도⁵⁾
- 신경보(新京报)는 이번 협정 종료에 대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일 양국이 협력과 대화를 유지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용 보도
- 또한 미국은 양국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바라고, 한·미·일 간의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동북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향후 일본, 한국과 지속적으로 안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
-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李柟 부연구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기반이고 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일 분쟁의 심화로 인해 종료가 되더라도 향후 관계가 개선된다면 재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 또한 미국이 한·일 분쟁을 중재할 의향은 없지만, 분쟁의 범위가 군사안보 분야로 확대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협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간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한·일 관계가 완전 결렬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분석

4) 「日本震惊：本以为韩国再怎样也不会做到如此地步」, 『人民网-环球时报』(2019. 8. 23)

5) 「韩国退出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 美国为何急眼」, 『新京报』(2019. 8. 23)